

//르포//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봉사활동...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 동행취재

마을축제 된 구슬땀봉사... 주민들 "업곤 치란" 함박웃음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캄프스푸=최권일기자

지난 3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차량으로 8시간 가량 떨어진 캄프스푸 주(州) 트라페임 마을 보건소에서 때아닌 '마을 축제'가 열렸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땀발 더위에 보건소 운동장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운동회가 열렸고, 보건소 내에서는 마을 주민 200여명이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섰다. 보건소 사무실 한 칸에 선 만화영화가 상영되고, 또 한쪽에서는 사진인화가 한창이었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에도 영화에 푹 빠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영화를 볼 곳이 없다"는 주민들의 말에 문병체 (주)국토정보기술단 단장이 한국에서 가져온 빔프로젝트와 영화CD 50장 등 관련 장비를 흔쾌히 기증하기도 했다.

멀리 대한민국 광주에서 온 리더들이 작업하는 땀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이곳 주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이 캄보디아 캄프스푸에서 건립중인 '광주 진료소'에서 펼친 이날 봉사활동은 '마을 축제'였다.

국내 교육계에서도 내노라하는 경륜과 연륜을 자랑하는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과 기노환 전 교장단협의회장, 박석인 극단 코스모스 대표 등은 이날 100여명의 아이들을 정담과 백팀으로 나눠 이어달리기, 댄스경연대회, 닭싸움 등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들은 5분만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 땀줄기가 맺히고,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데도 많은 아이들을 통솔하며 웃음 가득한 운동회를 만들어냈다. 역시 교육 전문가들 다녔다.

운동장 한 구석에는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등이 아이들과 축구경기를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현에 광주시의원과 김해속 송의중학교 교장 등은 이곳 청소년들과 함께 종이접기와 방향제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과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등 의료인들은 150여명의 안과, 내과 환자들을 진료했다. 더운 나라인 탓에 햇빛이 장시간 노출되는 안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70세의 고령에도 박요주 세무사와 원우중 막내인 김현지 복지법인 인애동산 사무처장, 조희은 (주)현대종합유통 대표이사 등은 사진찍기와 사진인화 봉사활동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 풀리치난(여·42)씨는 "가족끼리 사진을 찍는다는 게 이곳에서는 힘든 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은 우리 가족의



지난 30일 캄보디아 캄프스푸주 트라페임 마을에서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이 550만원을 기부해 설치한 '광주 진료소' 지하수 시설 준공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 회장(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 공동대표), 정인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장, 캄프스푸주 부지사, 정현에 광주시의원.

운동회·의료봉사·영화상영·사진촬영·방역...

각 분야 전문가 재능기부... 현지 국영TV 취재

평생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원 홍보산업(주) 총괄전무이사(광주은행 전 부부장)와 박인철 신유평테크(주) 대표이사 등은 처음 사용해보는 방역기계와 한바탕 씨름을 벌였다. 땀발 아래서 약품을 섞고, 방역기계의 사용설명서를 1시간 가량 익힌 뒤 결국은 기계 작동에 성공해 방역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칫솔, 스케치북, 종선 등의 한보따리 선물은 이날 봉사활동의 대미를 장식했다.

광주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 리더들답게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맡은 일에서 책임을 다하고, 전문가다운 포스를

뽐냈다.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펼친 이날 봉사활동에 주민들은 박수와 현지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업곤 치란'을 반복하며 연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오삼오 캄프스푸 주지사는 "대한민국 광주에서 온 리더들의 이날 활동에 놀랍고 감사할 뿐"이라며 "우리는 이날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서 캄보디아 국영TV 방송사에서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의 봉사활동과 캄프스푸주 건립내용을 취재하는 등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봉사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cki@kwangju.co.kr

◇광주 진료소(Kwangju Clinic)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건립 중인 의료 및 교육지원 시설.

광주일보와 아시아 자원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광주 진료소 추진위원회'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부터 60km 떨어진 캄프스푸 주(州)에 제1호 광주 진료소를 건립 중이며 연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진료소가 준공되면 현지의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성 필암서원, 유네스코 등재 대상 선정

'한국의 서원' 9곳에 선정

하서 김인후(1510~1560년)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자 건립된 장성 필암서원(사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선정됐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서원'이 선정됐다.

한국의 서원은 600여 개 서원 중에 장성 필암서원을 비롯해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병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논산 돈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등 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 사적 9개 서원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필암서원이 2011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뒤 올해 4월에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필암서원은 1590년(선조 23년)에 건립된 서원으로 1662년에 사액서원으로 승격되고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도 면한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한편 이날 군은 청림문화센터에서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양 서원 관계자, 관련 교수, 이정식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민 악록서원 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초청 특강은 필암서원과 악록서원 간 교류 협력 협의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행사로, 주한민 악록서원 원장은 '악록서원과 중국문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악록서원(蕪麓書院)은 중국의 4대 서원 중 하나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까지 석사와 박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전남도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총 338.8km 2016년까지 84억 투입

남도의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 농어촌을 체험하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1일 '연내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에 대한 실시계획을 마치고 내년부터 조성에 들어가 201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백리 숲길은 '백두대간에서 땅끝으로 지맥이길'의 구례구간(52.1km) '산자락을 적시는 강기슭길'의 곡성구간(44.6km) '술과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숲속길'의 화순구간(96.4km) 등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또 '활성산 목초지를 지나는 바람길'의 영

암구간(27.2km) '덕룡산과 월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암괴석의 바윗길'의 강진구간(58.7km)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길'의 해남구간(59.8km) 등 총연장은 338.8km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본선은 271.6km, 농어촌을 체험하고 다양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지선은 67.2km다. 신설구간은 72.3km다.

농로와 임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숲길 조성에 따른 환경파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오백리 역사숲길 주변에는 구례 사삼암을 비롯해 삼진강 벚꽃길, 곡성 압록유원지, 화순 운주사, 국립공원 월출산, 고산 윤선도 유적지 등 사적지와 천연기념물 등 역사문화현장에 산재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부산 남도해양관광열차, 누적 탑승객 수 1만명 돌파

남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여수~부산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의 누적 탑승객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여수시는 지난 9월 27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 남도해양관광열차의 누적 탑승객 수가 지난 30일까지 모두 1만1466명으로 집계됐

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승객이 탑승한 10월에는 99%의 승차율을 기록했고, 주말에는 한 달 전 표예매가 완료돼 탑승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박요주(맨 왼쪽) 박요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해속(맨 오른쪽) 송의중학교 교장 등이 캄보디아 청소년들과 함께 종이접기와 방향제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0일 트라페임 마을 학교 운동장에서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이 어린이들과 줄을 지어 풍선을 옮기는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 · 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 ·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010-3690-7790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과 마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동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장단,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주임급) 남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행업자 무대
- 급 여**
 - 연봉제(연접 후 결정)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임팩 다이너스티 컨트클럽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무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